

현대 독일어에 나타난 고어

김종수(부산대)

1. 머리말

언어에는 역사적 변화가 토대로 되어 있다. 언어의 기능을 특정한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특수한 문화 장치로 이해할 때 언어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낱말의 쇠퇴 역시 언어변화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단지 드물게 사용되는 낱말들을 고어라고 부른다. 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시점에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웃사이더로서 힘들어 습득해야 하는 고어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기능적 평가(가령 규범, 관점, 함축적 의미 등)의 지배를 받는 표현수단 체계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독일어에서 - 고상한 차원이든 일상적인 차원이든지 간에 -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아 고풍스럽게 작용하는 형태소, 낱말, 관용어구, 통사적인 구조, 이름, 의미 등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어사용자에게 아마 처음에는 낯설고 묘한 시대착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점차 동화되어 지나간 것 또는 잊혀진 것을 부활시키거나 고어의 도움으로 그때마다 현대어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되풀이하여 옛 어휘를 사용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어의 개념과 사전에 나타난 시간적 표지를 알아보고, 낱말이 고어화되는 원인과 다양한 고어 유형들을 살펴본 다음, 주로 고어가 사용되는 영역과 오늘날 고어가 재수용되는 동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고어 개념과 시간적 표지

‘고어 Archaismus’라는 말은 그리스어 ‘archaios’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고대의, 고풍스러운, 낡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어는 특히 수사학의 문체수단으로서 고풍스런 느낌, 즉 시적인, 장중한, 반어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자아내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¹⁾ 고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미 퇴화되었거나 퇴화되고 있지만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식에 아직 살아 오늘날의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표현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범주로서 언어발전의 특정한 시점에 관련되어 있다.

D. Cherubim(1988:527)은 고어에 ‘언어화석 Sprachfossilien’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그것을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표제 Aufschrift 나 비문 Inschrift에서 보듯 ‘지나간 시대의 언어흔적 Sprachspuren vergangener Zeiten’ 모두를 고어로 이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자연어가 의사소통상 여러 세대(즉 적어도 3세대)를, 문화적으로 수 백년 또는 심지어 수 천년을 가교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삶의 형태’에 속한다.

Es gehört, wie wir wissen, zur ‘Lebensform’ natürlicher Sprachen, daß sie kommunikativ mehrere (d.h. mindestens drei) Generationen, kulturell viele Jahrhunderte oder sogar Jahrtausende überbrücken können. (Cherubim 1988:529)

그러나 우리는 이전 언어상태의 모든 낱말을 고어로 간주할 수는 없고, 다만 오늘날의 언어사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고어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오늘날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가령 고고지독어 dumpfe ‘Schwindsucht’와 같은 낱말은 고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어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중요한 도구는 사전이라 할 수 있다. J. Grimm (1854ff.)은 자신의 사전 “Deutsches Wörterbuch” 제1권 서문(S. XIX)에서 사전의 임무를 숨겨진 “어휘적 보물을 끄집어내는 것 lexikalische Schätze hervorzuziehen”이라고 하였다. 사전은 일반적으로 여

1) Vgl. H. Bußmann(1990:95).

러 가지 표지를 사용하여 한 낱말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의사소통에서 선호되는 경우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을 의사소통상 적절한 표현의 사용에 대한 화용적 규칙의 축소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전에서는 문체적 표지와 특정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적 표지 외에도 시간적 표지 zeitliche Markierung가 기술되어 있다.²⁾ Duden-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DUW, S. 9f.)는 시간적 표지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1) 드물게 사용되며, 대개 나이든 세대에서만 사용되는 낱말은 '준고어 veraltend'로 표시한다(가령 Backfisch).
- 2) 더 이상 오늘날의 어휘는 아니지만, 의고취미에서나 농담조 또는 반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낱말은 '고어 veraltet'로 표시한다(가령 fürbaß, Muhme).
- 3) 더 이상 통상적이 아니거나 시의에 맞지 않는 사태를 나타내는 낱말은 '예전에는 früher'이라는 표지로 나타낸다(가령 Hungerturm, Leibeigenschaft).
- 4) 그 뜻하는 바가 지나간 역사시대에 속하는 낱말은 '역사어 historisch'로 표시한다(가령 Lehnswesen. Bannfluch).
- 5) 나치주의 언어에 속하는 낱말이나 나치시대에 특징적인 낱말사용 방식은 '나치어 nationalsozialistisch'로 표시한다(가령 Braunhemd).
- 6) 새로운 낱말과 새로운 의미 및 유행어는 특별히 표시하지 않았다.
- 7) 한 낱말이 아주 드물게만 사용되는 경우를 나타낼 때는 '드물게 selten'라는 표지로 나타낸다.

또한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WDG, S. 014f.)는 시간적 표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오늘날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학작품에서 등장하여 이해되는 낱말은 '고어'로 표시한다(가령 Binokel, Eidam).

2) F. de Saussure(1967:79ff.)에 의하면 언어변화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반드시 함께 작용한다. 1. 언어기호의 자의성, 2. 언어에 대한 사회적인 효력, 3. 언어의 시간성. 고어의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적 표지는 고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오늘날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나이든 세대의 어휘에 속하는 낱말은 ‘준고어’로 표시한다(가령 Absud, Boudoir, Gendarm).
3. 역사적 과거의 유물, 풍속, 관습 등은 ‘역사어’로 표시한다. 그러한 범주 내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이해된다(가령 Hellebarde, Ablassbrief, Turnier).
4. 나치시대에 전형적인 낱말은 ‘나치어’로 표시한다. 이러한 낱말은 사전에 제한적으로만 수록되어 있고 특히 반파시스트 문학에서 자주 사용된다. (가령 Gestapo, die Achse Berlin - Rom).
5. 지난 몇 십년간, 특히 1945년 이후 독일어에 새로 등장한 낱말은 ‘신조어 Neuwort’로 표시한다(가령 Automation, campen).
6.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즐겨 사용되는 낱말은 ‘유행어 Modewort’로 표시한다(가령 breit 3, zutiefst, in etwa).

위의 두 사전에서 보듯이 사전에서 고어의 표지 종류와 수 및 경계설정 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고어’, ‘준고어’, ‘역사어’, ‘전에는’, ‘드물게’ 등과 같은 시간적 표지에서 그러하다. 이를테면 Lichtspiel (‘Film’), Lichtspielhaus, Lichtspieltheater 등은 DUW에서는 ‘준고어’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WDG에서는 Lichtspiele(‘Filmtheater’)만이 ‘준고어’로 표시되어 있다.

고어화 과정 Archaisierungsprozeß을 고찰할 때는 두 가지 관점, 즉 지시된 대상에 대한 관점과 언어적 명칭에 대한 관점이 구별된다.³⁾ 지시된 대상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한 그 언어적 명칭도 ‘의사소통상의 중요성’을 잃는다. 왜냐하면 지시된 대상이 ‘생활에 실용적인 의미 lebenspraktische Bedeutung’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 역사어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명칭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과정을 인위적으로 묘사할 때 퇴화된 대상이 지시될 경우에도 사용되는데, 가령 Rittergut, Minnedienst, Turnier, Dienstmagd, Wegzoll 등에서 그러하다.⁴⁾ 비록 지시된 대상이 생활

3) Vgl. K.-E. Sommerfeldt(1988:127).

에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 명칭이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달리 명명될 경우에는 좁은 의미에서 고어가 문제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에서 경계설정과 판단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실제 언어사용에서도 유동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G. D. Schmidt(1982:195)는 오늘날의 사전에서 사용되는 시간적 표지는 낱말의 사용빈도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진술로서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고어가 아닌 낱말들도 드물게 나타나거나 의사소통상 주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고어에 속하는 낱말들도 가령 관용구 등에서 자주 나타나 의사소통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칭의 쇠퇴와 소멸은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사전에서도 상이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의 출현과는 달리 고찰하기 훨씬 더 어렵다. 고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텍스트와 광범위한 어휘영역이 필요하다. 신조어는 때때로 정확히 발생연대가 확인되지만, 고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D. Herberg(1976)는 WDG에서 M에서 Platten까지의 8500개의 표제어에서 고어 및 준고어를 조사하였는데, 그중 171개가 '준고어'로, 141개가 '고어'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한 전체어휘의 3.7%에 해당한다. 고어형에 속하는 전체 312개의 표제어 중에서 232개가 명사였다.

3. 고어화에 대한 원인

오늘날 Knaben-Mittelschule와 같은 표현은 고풍스러운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 고어들 중에는 라틴어와 중세저지독어를 비롯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 비록 오늘날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 낯설지만 우리의 이해 범위에 놓여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낱말들은 왜 퇴화되는 것일까? 어휘소의 쇠퇴의 진행은 새로운 낱말들의 출현보다 밝혀내기 더 어려운 과정이다. 몇 가지 원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⁵⁾

4) Vgl. I. Kühn(1994:109).

5) Vgl. D. Cherubim(1979); Th. Schippan(1992:248f.).

첫째, 유추조어 Analogiebildungen에 의해 옛 형태가 밀려나고,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옛 세대의 언어사용이 거부되고 새로운 힘에 의해 새로운 어휘가 관철된다. 그리하여 체계에 맞지 않는 옛 외래어들(예컨대 Kanapee)은 특히 정서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독일어 낱말에 의해 밀려나고, Trottoir와 같은 낱말은 구어에서는 아직 살아남아 있으나, 문어에서는 이미 Bürgersteig라는 낱말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많은 외래어들(가령 철도부문에서 Cupé, Perron)은 전 명칭영역에서 새로운 낱말들에 의해 교체된다.

둘째, 낱말이 그 지시대상과 함께 퇴화하기 때문이다. 지시대상이 사회적 환경에서 사라질 경우 그 명칭 또한 필요가 없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시대상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오늘날 사용되는 어휘소들을 역사어 Historismen라 부른다. 예컨대 Brückenzoll, Wegzoll, Geleitgeld, Geleithaus 등은 명명되는 지시대상과 함께 퇴화되었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 말하거나 쓰기 위해 사용된다. 역사어는 언어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유래하는데, 그와 같은 어휘소들을 사용할 때 여러 독일어권 나라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미 퇴화된 Maut라는 낱말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직도 사용된다. 고고지독어나 중고지독어 시대에서 나온 역사어들을 오늘날 사용할 경우에는 가령 Minne와 같이 대문자 쓰기를 통해 정서법상 현대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Dienstmagd, Knecht, Pedell과 같은 낱말들도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 준다.

셋째, 지시대상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언어경제상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ein Laib Brot는 ein Brot만으로 충분하다. 특정한 도량단위는 오늘날의 조건하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그 명칭이 퇴화되어 옛 통속소설 텍스트에서 나타나거나 아직도 나이든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된다. 그리하여 Schock, Mandel, Pfund와 같은 수량단위들은 점점 더 드물게 사용된다. ein Viertelpfund, ein Achtelpfund 등에서 Pfund 그 자체는 Kilogramm, ein halbes Kilo, 500g 등으로 대체된다.

넷째, 더 이상 중립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단지 방어적 또는 폄하적인 뉘앙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가령 ein hübscher Knabe, des Schulmeisters

Weib 등과 같은 고어들에서 Knabe는 Junge에 의해 밀려났으며,⁶⁾ Weib는 Frau에 의해, Schulmeister는 Lehrer에 의해 대체되었다.

4. 다양한 고어 유형들

오늘날 독일어에서 고어는 비록 어휘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지라도 결코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어는 음성, 형태소에서부터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차원에서 나타난다. 다양한 고어 형태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어는 음성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늘날의 표준어 규칙에 따라 옛 음성상태가 지역적인 변이형에서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식적으로 고풍스런 콘텍스트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고어로 기능한다: alem. Zit vs. hd. Zeit; nd. Planten vs. hd. Pflanzen

오늘날 독일어 낱말 어간형태의 여러 변이형들은 옛 음성발전 상태와 새로운 음성발전 모습을 나란히 보여준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현대적인 발전도 이차적인 영향(가령 문법적인 규범화, 외래어 영향)을 통해 옛 발전 내지 오늘날 고풍스럽게 작용하는 발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 i-변모음: Kur/Kür, drucken/drücken, anmutig/demütig, blutig/kaltblütig, Bosheit/bösartig, Paradies/Paradeis(가령 찬송가에서), Melodie/Melodei, Kompanie/Kumpanei, Wiegand/Weigand, Weinrich/Weinreich, Richard/Reichard

- u에서 au로 신고지독어 복모음화: Bruno/braun, Ur/Auer(ochs), Gertrud/Gertraude, Pluder(hose)/plaudern, (der) Lutter/lauter/läutern

- iu에서 eu로의 복모음화: Hüne/Heune(Hunne)

- i, u에서 e, o로의 모음혼화 Brechung: München, Münchhausen-Mönch

- 옛 형태와 새 형태가 병존하는 경우:⁷⁾ Verlöbniß/Verlobung, Wahn/Argwohn, Sühne/versöhnen, ergetzen/ergötzen, gülden/golden

6) 그러나 Knabe는 오늘날에도 몇몇 복합어의 기본어 Grundwort로 나타난다: Knabenbekleidung, -chor, -schule, -stimme, streich.

7) Vgl. I. Kühn(1994:109).

- 모음의 추가 또는 약한 모음의 생략:⁸⁾ geschahe, sahe, nimmest, waret, redt, Unruh, Höh

둘째, 언어사적인 의미에서 형태상의 고풍스런 잔여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⁹⁾

- 약화되지 않은 어미: Heiland, Wiegand, Otto, Gisela, Obrist(Oberst), dero, desto, Heimat, Kleinod, Wermut, Balsam
- 옛 2음절 형용사: böse, träge, blöde
- 옛 부사 형성: lange, gerne, (von) ferne
- 약화되지 않은 파생모음을 동반한 경우: Nachtigall, Bräutigam
- 완전 접두사: Urständ(erstanden), Urlaub(erlauben), Galopp(ge- 대신 옛 형태 ga-), antworten, urkunden(erkunden), urteilen(erteilen)
- 단수명사, 특히 3격 표지 -e와 4격 어미 -(e)n에서 완전 어형변화 형태의 사용은 고풍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잔여물은 특히 속어적인 사용에서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am Tag(e), danach/untertage, nichts im Sinn haben/in diesem Sinne, sprich mit deinem Sohn/wenn der Vater mit dem Sohne, im Rat sitzen/zu Rate ziehen, am Kreuz hängen/zu Kreuze kriechen, einen Bär jagen/jmd. einen Bären aufbinden
- 수사에서도 고어형으로 나타나는 어형변화형태 유물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여전히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zu zweien und zu dreien, alle Viere von sich strecken, alle neune kegeln
- 일반적으로 인명에서의 어형변화는 고풍스럽게 작용하며(Goethen lesen), 형용사 접미사에 의한 인명의 변화도 마찬가지다(die Gottschedsche). 약변화 동사형과 강변화 동사형이 병존할 때 하나는 대개 고풍스럽게 작용한다 (boll/bellte, troff/triefte, rufte/rief). 그밖에 고풍스런 어형변화의 가능성은 분사(geschmecket/geschmeckt), 명령형(schreibe/schreib), 몇몇 부사(von dannen, hinnen, dorten) 등에서도 발견된다.

8) Vgl. P. v. Polenz(1994:324).

9) Vgl. D. Cherubim(1988:534).

셋째, 고어는 자소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특정한 서체(프락투어 체 대 라틴문자체)나 특수한 활판인쇄 형태(가령 대문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특히 1901년에 개최된 정서법회의 이전에 통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단지 문체상의 목적을 위해 정서법에 벗어나는 옛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That vs. Tat, Cigarette vs. Zigarette, Capital vs. Kapital, Kameel vs. Kamel, Herzogthumb vs. Herzogtum, Race vs. Rasse, Aerger vs. Ärger, marschiren vs. marschieren, reducirt vs. reduziert, gebohren vs. geboren, ächt vs. echt, tugentsam vs. tugendsam, bey vs. bei 등.

또한 북독일 지방의 인명이나 지명 등에서 아직도 나타나는 정서법상의 주변현상도 고풍스럽게 느껴진다. Kevelaer, Soest, Lueg, Voigt, Luidger 등과 같은 예에서 보듯 자소 a, o, u에는 모음길이를 표시하는 e 또는 i가 추가로 들어 있다.

넷째, 고어는 어휘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Almosen, Huld, Witfrau, Wonne, Bastion, Kampagne, Bollwerk, Schlacht, Krieger, Autobus, Galanteriewaren, erkoren, abgestorben, mannfest, allhier, bestallt, wohlweise

어떤 낱말들은 고어가 아닌 낱말들과 동의어를 이룬다:¹⁰⁾ Oheim - Onkel, Knabe - Junge, Schulmeister - Lehrer, Aftermieter - Untermieter, Kerker - Gefängnis, abkonterfeiern - abzeichnen, absentieren - sich entfernen

고어형의 낱말들은 문학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Harm, Wallen, Woge, Mahl(Mahle). 특히 중세 기사문학이나 궁정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낱말들은 종종 고어로 이해된다:¹¹⁾ Minne, Recke, Wonne, Degen 'Kämpfe', Abenteuer, Buhle, Fehde, Gau, hehr. 때때로 지역어나 방언적 표현도 시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경우 고풍스럽게 느껴진다. 또 루터의 성서에서 유래하는 고어들도 많이 있다: Hain, Halle, hehr, Kü(h)r, Schöne(nhd. Schönheit), Waller 'Pilger', Wonne.

10) Vgl. I. Kühn(1994:109).

11) Vgl. C. J. Wells(1990:134f.:362).

다섯째, 고어는 조어영역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 고어화의 가능성은 옛 형태의 단일어와 새로운 접두사화에서 생겨난다: Vorteilsnahme, Landesnahme vs. Annahme, Familienglieder vs. Familienmitglieder, hanten vs. enthalten, schweigen vs. verschweigen, schwenden vs. verschwenden, Einfluß üben vs. ausüben, Gewandhaus vs. Leinwand
- 접두사조어가 경합할 때: behändigen vs. aushändigen, entmessen vs. vermessen, beziehen vs. erziehen
- 비교적 드문 접두사류 조어 Präfixoidbildungen: Erzhalunke/Erzbischof, Afterglauben, Afterdienst, Aberwitz, abertausend/Aberglaube, abermals, blitzsauer/blitzgescheit, saustark/saugrob
- 접미사화:¹²⁾ die Finstere, Schöne vs. die Finsternis, Schönheit, Lüftlein, Brünnelein, beglaubter vs. beglaubigter, künsteln, kleineln, zwergeln
- 일반적으로 아니거나 비생산적인 파생어의 사용: Gemäßheit, Gerechtsame

여섯째, 고어는 통사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¹³⁾

- 오늘날 일반적인 전치사격 연결 대신 2격이나 3격을 동반한 순수격 구조: Kniees tief, des Wartens müde sein, guten Mutes sein, reinen Herzens sein, der Heimat getreu, jmdm. zu Dienste sein u.a.
- 이름과 칭호에서 어형변화 접미사 또는 성전환 파생접미사의 사용: des Bürgermeisters Kalen, der Frauen Annen Catherinen, Giselern, Obristen, seliglichen
- 부사적으로 사용된 2격 구조: sommers wie winters
- 고어지만 문체상 아직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 결합: einer Verbindung halber/wegen, Akademie zu/in Berlin, zu Häupten, zur Rechten
- 몇몇 혼성 접속사, 부사, 대명사: indessen/doch, denn/als, alldieweil/weil

12) Vgl. S. Grosse(1985:1537); P. v. Polenz(1994:324).

13) Vgl. S. Grosse(1985:1537f.); D. Cherubim(1988:535f.).

- 틀구조와 특정한 어순규칙의 파괴: Röslein rot, eine Kegel schwarze, und lebten sie lange zusammen
- 관계대명사로서 welcher의 선호와 dergleichen의 사용
- 주어대명사의 생략 또는 분사구문에서 정형태의 생략: und [ich] habe kein Geld; gestorben [ist]; so sind auch die Umstände, unter denen ich meine Reisepläne entworfen [habe]

일곱째, 고어는 이미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음성적, 형태적, 문법적 수단과 다양한 어휘적, 숙어적 가능성 외에도 텍스트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것은 문체적, 화용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와 내용구조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다.

- 특정한 호칭의 선택(Er/Ihr 호칭 vs. Du/Sie 호칭)
- 레스토랑 종업원이 사용하는 간접성의 형태: Der Herr wünschen? Wünsche wohl geruht zu haben! Wollen der Herr unten speisen?
- 오래된 완곡어법 형태: Hosen 대신 Unaussprechlichen, Popo(Podex) 대신 vier Buchstaben, Teufel 대신 Gottseibeius
- 은유와 비유의 사용 및 관용어법:¹⁴⁾ Phyrhussieg, Benzinkutsche, postwendend, den Laufpaß geben, Fersengeld geben, Schindluder treiben, sich anheischig machen
- 역사적-문체적 변이형태: 오늘날의 언어사용 형태와 더불어 세대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옛 형태가 함께 보존되어 있다(가령 Steckenpferd/Hobby, Brause/Dusche, wirklich gut/echt gut).¹⁵⁾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기에 걸쳐 기능적 변화가치로써 고어로 관습화된 옛 언어형태가 사용되기도 한다(Universität 대신 Alma mater, Mitstudent 대신 Kommilitone, 대학 은어에서 Vorlesung 대신 Kolleg, Gefängnis 대신 Kerker, 정치적인 논쟁에서 Polizist 대신 Scherge).

14) 옛 교양어의 은유와 관용어법에서 나타나는 고어는 엘리트 의식, 사회적인 거리유지, 빈정거림, 정감, 감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화용적인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Vgl. P. v. Polenz(1991:56).

15) Vgl. P. v. Polenz(1991:66).

- 라틴어나 불어에서 온 외래어의 심한 간섭(19세기에 널리 유포되었음): 특히 여기서는 특정한 형태적 텍스트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자종류의 결합(라틴 문자체의 외래어를 가진 프락투어체의 텍스트), 콤마 대신 사선의 사용 및 고어투의 띄어쓰기(Plata-Strom, Jahres-Temperatur, Hafen-Bureau) 또는 대문자 쓰기(Lobrede von der Uralten Teutschen HauptSprache)
- 텍스트에서 옛 독일 이름의 사용(Otfried, Notker, Volkhart, Hadumod, Dietmute, Siegraut)과 역사적인 소품의 사용(옷, 기구, 관습, 제도)은 고풍스럽거나 적어도 고풍스런 풍취를 자아내게 할 수 있다.

5. 고어의 사용영역 및 재수용 동기

원칙적으로 고어는 모든 콘텍스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의사소통 관계에서도 나타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고어는 언어예술작품에서 특수한 문체적, 수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지나간 시대, 즉 역사적인 각 시대 풍취를 만들어 내거나 그 시대의 말씨를 쓰는 인물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고어를 사용한다.¹⁶⁾ 중세의 영웅가풍의 작품에서 독자와 청자에게 영웅적인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고풍스런 어휘가 사용된다(가령 *degen, recke, wigant, vrech, snel*). Th. Mann은 『*Lotte in Weimar*』에서 괴테 시대의 독일어를 대가의 면모답게 사용한다. 여기서 시대문체, 고어에 속하는 어휘로써 소설의 역사적 틀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여기서 고어는 표지기능을 가지며, 고풍스러운 말씨에 의해 한 인물의 세대결속이 특징지어진다. 역시 Mann의 소설 『*Doktor Faustus*』에서 Serenus Zeitblom은 자신을 ‘독일 인문주의자의 후손’으로 이해하고 인문주의적 교양시민의 어휘를 통해 그것을 표현한다(가령 *ehrerbietige Vertraulichkeit, Helene, geb. Ölhafen, mein treffliches Weib*).¹⁷⁾ 또한 독일 문학사에서도 고어화 계기와 고어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인문주의이래 생

16) Vgl. S. Grosse(1985:1538); I. Kühn(1994:109).

17) Vgl. Th. Schippan(1992:250).

거난 게르만족 열광과 점차 고대 독일문학의 재발견으로 인해 특히 18세기 (Klopstock, Göttinger Hain)에는 고대 독일어휘(어풍)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19세기 역사주의 문학과 함께 그 절정에 도달하였다.

문학적인 텍스트 외에도 종교적인 텍스트나 법률적인 텍스트에서도 고풍스런 언어사용이 자주 나타난다. 이에 대해 Cherubim(1988)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에서 사회적 경험과 가치표본이 고수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전승되는 곳에서 쉽게 특정한 언어표본에 대한 격식적인 고착화가 나타난다. 그 언어표본은 심지어 삶에 실용적인 콘텍스트의 변화로 인해 오래 전에 진부한 것으로 되었어야 했는데도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

Vor allem dort, wo in Sprache soziale Erfahrungen und Wertmuster festgehalten und für die folgenden Generationen tradiert werden, kommt es leicht zur rituellen Fixierung auf bestimmte Sprachmuster, die selbst dann noch aufrecht erhalten werden, wenn sie infolge der Veränderungen im lebenspraktischen Kontext längst hätten obsolet werden müssen. (S. 539)

또한 학문적인 텍스트에서도 장중함을 불러일으키거나 은어 Jargon와 같은 특징을 가질 때는 고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라틴어의 학문언어에서 나온 관용구의 빈번한 사용(per definitionem, medias in res, in nuce, post festum)과 특정한 고풍스런 낱말(allgemach, geschweige denn, halber, angesichts, dessenthalben, sinternal) 등이다.

고어는 주로 문학, 종교, 법률, 학문 영역에서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고어가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 독서, 언변 정도에 따라 이러한 고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적게 사용하느냐 하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가령 고어투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익살스럽게 사용할 때나, 반어적, 비판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된다: Haben der Herr gut gespiesen? Wie ist dero Wohlbefinden? Hat's Euch nicht geschmacket?

고어가 일상생활에서 즉흥적으로 사용될 경우 우리는 화자의 생활상태와

생활경험을 잘 엿볼 수 있다: 'Guten Morgen, du Schöne', Badekarren, Kaufmannsladen, Lokalanzeiger, Dienstmädchen.

고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체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소수의 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전체 텍스트에 대해 모두 고어를 쓰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며 대개 문학적, 학문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오늘날 일상어에서 고어형태가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은 특히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보다 자유로운 언어형태(가령 보고, 주석, 논평, 문예란 기사, 비평)를 가진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어체와 고어는 상품광고와 서비스 광고에서도 등장하여 특히 '원래의 것 Ursprüngliches', '진짜배기 Echtes' 등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 가령 고급 주류에 대한 광고에서 좋았던 옛 시대를 회상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소품, 글자체, 고어를 사용한다. 상품 텍스트에 대한 고어와 준고어는 다양한 문체와 철저한 방식으로 특정한 역사적 상태 및 대상과 직접 결부된 생산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서점 카탈로그, 광고 책자, 소위 중세풍의 연회를 위한 메뉴판 등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오늘날 Oktoberfest와 같은 도시축제나 유사한 행사를 알릴 때도 등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언어사용에서도 텍스트의 고어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Cherubim(1988:533)은 고어의 출현을 시간적인 표지와 관련지어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고어는 문체적으로 통합된 개별 언어참여자와 특정한 집단의 언어능력 요소로서 나타난다. 둘째, 고어는 한 언어공동체에서 여러 상이한 연령집단의 사회적 차이의 표시로서 나타난다(소위 '연령-등급 age-grading'). 셋째, 상이한 특수어 Spezialsprache 또는 변이형의 독특한 구성요소로서 나타난다. 넷째, 옛 텍스트나 언어상태의 문화적 연속성의 대표형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면 고어는 오늘날 어떻게 재수용되고 있는가? 고어가 구체적으로 재수용되는 동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육성차원에서 옛 어휘를 보호하는 것이다. 고어를 귀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보고 외래어 차용이나 무분별한 유행적인 신조어에 맞서 적어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는 고어가 빈번히 사용된다.¹⁸⁾

- 2) 옛 텍스트를 현대어에 맞게 옮길 때 의식적으로 고어형의 낱말이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Märe, Frau Saelde, Haynreich Witenweylär*.
- 3) 옛 독일문학의 소재를 임의로 개작하거나 역사소설, 담시, 드라마, 오페라, 영화 등에서와 같이 중세의 인물과 사건을 픽션으로 만들 때 독자에게 시간적 거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현대어법에 고어를 삽입한다. 이때 간간히 삽입된 고어는 장식적인 느낌과 역사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 4) 마찬가지로 중세의 테마에 대한 학문적인 논문과 연구는 옛 어휘의 부활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 시대의 전문지식, 개념이나 사상을 그 당시 통용되었던 어휘로 명명하기 때문이다. 가령 학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gebende, varndes guot, milte, ere* 등과 같은 고어는 오늘날의 콘텍스트에서는 역사적인 정취의 기능보다는 인용형태에 의한 전문용어로 기능한다.
- 5) 고어와 고어형의 관용어구는 가령 19세기 기사도적인 신문문체에서 생생한 그림과 은유로 나타난다: *seine Sporen verdienen, jemanden auf den Sand setzen, den Gegner aus dem Sattel heben, für jemanden eine Lanze brechen*.
- 6) 소멸을 염려하여 문자로 기록되는 구전 텍스트는 민속/민중/민간 *Volks-* 이라는 접두사 표지를 가지는데, 동화, 전설, 민속문학, 민요, 수수께끼, 속담, 관습규정(조리법, 처방전, 축복, 계산법, 농사격언, 주술 등)에서 그러하다.¹⁸⁾ 이러한 것들에는 고어가 많이 들어있고 기록시 대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림동화에서 “*Wie die Alten sungen, so zwitschern jetzt jetzt die Jungen*”, “*O du Falada, da du hangest/ o du Jungfer Königin, da du gangest*”, “*ein gülden Ringlein*”, “*die Zeit ist kommen*”
- 7) 방언은 옛 언어발전 단계를 그대로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학 텍스트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텍스트에서 고풍스런 표현이 아주 빈번하

18) Vgl. S. Grosse(1985:1535f.).

19) Vgl. Th. Schippan(1992:249).

게 등장한다.

8) 오늘날 언어발전의 특징은 어휘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때 낱말의 소멸과 신조어의 급격한 증가는 대립을 이룬다. 그러나 신조어는 또한 옛 고유 어휘를 부활시킴으로써 풍부하게 된다: hort - Kinderhort; sieden - Tauchsieder

9) 새로운 발명과 기술로 인해 옛 명칭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록 옛날과 오늘날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지라도 옛 명칭을 수용할 때는 충분한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tarnkappe - tarnen, turnier - Tennisturnier, visier - Visier.

10) 고유명사 분야에서 명칭의 연속성으로 인해 일련의 고어가 나타난다: 예컨대 Meier, Schäffler, Schröter, Seiler, Spengler, Stellmacher, Zwirner 등과 같은 성이나 michel - Mecklenburg, lützel - Lützelburg, stouf - Hohenstaufen, venne - Hohes Fenn, Finnland 등과 같은 지명, 강 이름, 하천명, 산 이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어는 시간상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인명의 선택은 시대조류나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1차 대전 후에는 Siegfried, Gudrun, Kriemhild, Brunhild, Günther, Rüdiger, Gernot, Giselher, Volker 등과 같이 독일 영웅사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빈번하게 지어졌다.

6. 맺음말

시간적 평가의 지배를 받는 언어현상으로서 고어와 고어화는 지금까지 언어학에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로 언어 비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고어는 훌륭한 내지 순수한 언어사용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하거나 단지 특정한 상황하에서만 허용되는 과거어 정도로 취급되었다.

지나간 문화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고어 형태로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사전에서는 이것을 ‘고어’, ‘준고어’, ‘이전에는’, ‘드물게’, ‘역사어’ 등과 같은 표지를 붙인다. 고어는 오늘날 어휘영역 뿐만 아니라 음성, 형태소, 자소, 조어, 통사, 텍스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서 문학, 종교, 법률, 학문적인 텍스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고어는 과거에 대한 언어적 증거물인 동시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또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에 대한 기호이다. Cherubim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의사소통상 여러 세대를, 문화적으로 수 백년 또는 심지어 수 천년을 가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언어공동체는 고어를 단순히 진부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나간 것과 잊혀진 것을 상황에 맞게 새로이 부활시킴으로써 현대어를 더욱 심화, 확대시킬 수 있는 귀중한 민족적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사전류(Wörterbücher)

DUW = 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2. völlig neu bearb. und stark. erw. Auflage. Hrsg. und bearb. vom Wissenschaftlichem Rat und den Mitarbeitern der Dudenredaktion unter Leitung von Günther Drosdowski. Mannheim/Wien/Zürich 1989.

WDG = Wörterbuch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rsg. von Ruth Klappenbach und Wolfgang Steinitz. 6 Bde. Berlin 1961-1977.

2. 이차문헌(Sekundärliteratur)

Bußmann, Hadumod(²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Cherubim, Dieter(1979): Zum Problem der Ursachen des Sprachwandels.

In: Zeitschrift für Dialektologie und Linguistik 46, S. 320-337.

Cherubim, Dieter(1988): Sprach-Fossilien. Beobachtungen zum Gebrauch, zur Beschreibung und zur Bewertung der sogenannten Archaismus.

- In: Munske, H. H. et al.(Hg.): Deutscher Wortschatz: Lexikologische Studien. L. E. Schmitt zum 80. Geburtstag. Berlin/N.Y. S. 525-552.
- Grimm, Jacob(1854ff.): Deutsches Wörterbuch. Leipzig.
- Grosse, Siegfried(1985): Die Belebung mittelhochdeutschen Sprachguts im Neuhochdeutschen. In: Sprachgeschichte. HSK 2.2. Berlin/N.Y. S. 1534-1538.
- Herberg, Dieter(1976): Veraltendes und Veraltetes in unserem Wortschatz. In: Sprachpflege 25, S. 1-5.
- Kühn, Ingrid(1994): Lexikologie. Eine Einführung. Tübingen.
- von Polenz, Peter(1991, 1994): Deutsche Sprachgeschichte vom Spät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Bd. I: Einführung · Grundbegriffe · Deutsch in der frühbürgerlichen Zeit. Bd. II: 17. und 18. Jahrhundert. Berlin/New York.
- de Saussure, Ferdinand(²1967):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Hg. v. Ch. Bally und A. Sechehaye, übersetzt von H. Lommel. Berlin.
- Schippan, Thea(1992): Lexik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 Schmidt, Günter Dietrich(1982): Paläologismen. Zur Behandlung veralteten Wortguts in der Lexikographie. In: Deutsche Sprache 10, S. 193-211.
- Sommerfeldt, Karl-Ernst(1988): Entwicklungstendenz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 Wells, C. J.(1990): Deutsch: eine Sprachgeschichte bis 1945. Aus dem Englischen von Rainhild Wells. Tübingen.

Zusammenfassung

Archaismen im heutigen Deutsch

Kim, Jong-Soo(Pusan Univ.)

Archaismen als sprachliches Phänomen, das zeitspezifischen Bewertungen unterliegt, sind bis jetzt in der Sprachwissenschaft wenig beachtet worden. In vorliegender Arbeit werden die vielfältigen archaischen Formen behandelt, die noch heute in einem bestimmten Kontext gebraucht werden. Das Wort Archaismus stammt von dem griechischen *archaios* 'altertümlich', und wird hauptsächlich als Stilmittel der Rhetorik benutzt, um poetische, pathetische oder ironische Effekte hervorzurufen.

Unter Archaismus wird ein aus verschiedenen Gründen veraltendes und veraltetes Wortgut verstanden, das aber noch im Bewußtsein der Sprachträger lebt und im gegenwartssprachlichen Text verwendet wird.

Ein Instrument zur deskriptiven Erfassung von Archaismen kann das Wörterbuch sein. In Wörterbücher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werden Angaben über zeitspezifische Markierungen eines Lexems gemacht: z.B. 'veraltet', 'veraltend', 'früher', 'selten' 'historisch', 'nationalsozialistisch', , 'modern', 'modisch' usw. Aber über Art und Zahl der Markierung einerseits und über ihre Trennschärfe andererseits besteht noch keineswegs Klarheit.

Der Vorgang des Veraltens - der Archaisierung - von Lexemen ist ein Prozeß, der schwieriger festzustellen ist als das Aufkommen von neuen Wörtern. Hier soll nur eine von verschiedenen Ursachen genannt werden: Wörter veralten mit ihren Denotaten. Wenn das Denotat aus dem gesellschaftlichen Leben verschwindet, ist auch die Benennung nicht

mehr notwendig.

Archaismen sind keineswegs auf den lexikalischen Bereich beschränkt, obwohl sie dort am meisten auffallen. Sie treten vielmehr auf allen Strukturebenen, vom Laut bis zum Text, auf:

- auf der lautlichen Ebene: Kur/Kür, Melodie/Melodei, gülden/golden
- auf der morphologischen Ebene: gerne, am Tage, geschmecket/geschmeckt
- auf der graphematischen Ebene: That vs. Tat, Capital vs. Kapital
- auf der lexikalischen Ebene: Oheim, Knabe, Kerker, Schulmeister
- auf der Wortbildungsebene: Aferglauben, Schöne, kleineln
- auf der syntaktischen Ebene: guten Mutes sein, einer Verbindung halber, Röslein rot
- auf der Textebene: Wollen der Herr unten speisen?

Archaismen treten in unterschiedlichen Texten und Textsorten auf. Eine spezielle Funktion haben Archaismen im Sprachkunstwerk. Autoren nutzen sie, um Zeitkolorit zu schaffen. Im Alltagsleben können Archaismen Lebensumstände und -erfahrungen signalisieren.

Altes Wortgut wird als kostbarer nationaler Besitz angesehen. Man kann heute immer wieder den Rückgriff auf älteres Sprachgut beobachten, entweder um Vergangenes und Vergessenes neu zu beleben oder um die jeweilige Gegenwartssprache mit Hilfe von Archaismen historisch zu vertiefen und gleichzeitig zu erweitern.

Archaismen sind somit die sprachlichen Zeugen der Vergangenheit. Zugleich sind sie auch Zeichen für die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 in heutigen Sprachen, weil sie "kommunikativ mehrere Generationen, kulturell viele Jahrhunderte oder sogar Jahrtausende überbrücken können".